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 34억 투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예산 34억을 들여 자활근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저소득 가정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썬채소 생산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기능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대상자가 탈수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기술습득 등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은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으로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시장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있다.

현재 자활근로 인력의 참여 현황을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20명이 읍·면·동 및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환경정비 및 복지업무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활인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기술습득을 하고 있다.

남원지역자활센터의 3개 기관(단체)에서 시장전입형,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25명 참여하여 음식물재활용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5대 전국포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2개 자활기업에서 46명이 썬

채소 생산·판매, 효소차 제조 판매, 친환경 제품 판매 및 농산물 제조판매에 참여해 각자 기술을 연마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등 많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 자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유형 다변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독립·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육점과 식당을 개업하여 사업단에서 생산되고 있는 돼지고기 찜채소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자활 참여자에게 요리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 자활사업단 수익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제공으로 개별 1:1상담을 통하여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대상은 만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단계별 참여하며,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2단계 참여시 직업훈련비 최대300만원 및 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3단계 참여 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인원은 32명으로 제조업체, 학습지, 관공서, 병원, 호텔 서비스업, 요식업,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하고 20여 명이 탈수급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속 개발하기 위해 자활사업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할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시정운영 최선 다짐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 개최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의 봄 길목에서 남원시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시정운영을 새롭게 다짐하는 장(場)을 열었다.

남원시는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장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 윤리현장 낭독, 시정발전 유공 시민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완주 시장은 직원들에게 "3월은 시작과 계획의 계절인 만큼 연초에 마음먹었던 일들이 자심삼일(作心三日) 되지 않고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예산

조기집행,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국가예산 확보 및 보조금 집행 철저, 공모 및 평가사업 선제적 대응, 현지방문을 통한 소의계층 복지정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원시는 '화합의 날' 행사가 뜻깊고 의례적인 남원시 공무원들의 월별 정기행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호응과 내실을 이룰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생활속의 토크 튀는 아이디어나 업무 노하우, 자랑거리나 경험담 소개 등 다채롭고 자유스런 주제로 직원들에게 발표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참여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실시

5억 1000만원 투입 87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나서

임실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LH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주택잔수조사, 사후관리 등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선유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기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의 지원한도(3년 주기, 220만원)가 낮아 도배·장판 등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 주택현장실시(LH공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8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맞춤형 지원 나서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주거여용 편의시설(380만원)도 제공한다.

군은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선정해 보수범위, 대상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연간수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대보수 13가구, 중보수 97가구, 경보수 65가구 등 총 87가구에 5억 1000만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군, 출산지원 대폭 확대

장려금 넷째아이 이상 1500만원으로 늘려

순창군이 최근 넷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1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해 출산율 높이기 시책을 펼쳤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군 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대폭 늘어나고 자격요건은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첫째 아이 출생 시 기존 22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넷째아이 1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둘째 아이 4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은 기존 장려금액을 유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거주요건도 완화했다. 군은 기존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거주'하던 것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거주로 완화했다.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임신부와 산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등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조례 공포 후인 3월 안에는 개정된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권인규 기자

이밖에도 순창군은 남임부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및 임신부 이송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및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주민들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출산지원시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14년 151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33명이 증가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순창=권인규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교육특례

임실군, 학교폭력 예방 합동캠페인

임실군은 새학기를 맞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6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을 2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임실고등학교, 동중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심민 군수, 임실경찰서장, 임실군학교폭력대책위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했다.

비밀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절차와 누구나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하십시오' 등을 주제로 자기보호방법과 자기조절방법을 설명했으며, 신고행위는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인식 조성에 노력했다.

한편,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대처방안과 상담은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 청소년 전화 헬프콜(국번없이 1388)을 이용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사업 본격 추진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래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공간 및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관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순창군과 순창군공무직노동조합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원 부군수와 배성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남원시지부장을 비롯한 양명이 참석했다.

순창군 노사는 이번 교섭을 통해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순창=권인규 기자

고창 상하면, 산불요인 제거작업

고창군 상하면이 '산불 없는 마을'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면은 2일 상하면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취약지역 관리에 힘썼다.

이날 상하면 장사포와 송림산 인근 농경지를 포함하여 산불취약지역 약 14개소에서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이제택 상하면장은 "변해 산불취약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상하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서, 상반기 진압훈련 실시

순창경찰서는 지난 이틀간 순창공설운동장에서 상반기 임시편성부대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법예방, 준법보호 패러다임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순창군민들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 상반기 인사발령 이후 진압부대 인원을 재편성하여 각종 집회 시위현장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포술, 방패술, 봉술로 이루어진 의미있는 훈련이었다. /순창=권인규 기자